

2024. 6. 30

제115권 26호

**주일1부(묵상)예배**

오전 7시30분

인도:정준환목사

예배의부름	.....	인도자
송영	.....	찬양대
찬송 *서서	..... 21장	다함께
성시묵상	..... 103	다함께
고백의기도	.....	다함께
사죄의선언	.....	인도자
신앙고백	.....	다함께
찬송 *앉아서	..... 540장	다함께
기도	.....	김광수장로
찬송 묵상	..... (광야를 지나며, 조재일집사)	다함께
봉헌송 *서서	..... 213장(4절)	다함께
봉헌기도	.....	정승호목사
교회소식 *앉아서	.....	정승호목사
찬양	..... 꽃들도	살림찬양대
찬송	..... 637장	다함께
성경봉독	..... 열왕기하4:32~37(구약P.566)	정승호목사
말씀선포	..... <b>【섬김과 영감】</b>	정승호목사
말씀묵상	.....	다함께
성도의교제 *서서	..... 55장	다함께
축도	..... 송영	정승호목사

**오늘의 말씀 / 정승호 목사**

성령강림절 후 여섯째 주일

열왕기하 4:32~37 / 섬김과 영감

**주일2부(전통)예배 / 오전 9시**

인도:황관욱목사

찬송	..... 21, 540, 442, 55장	다함께
교독	..... 103	다함께
기도	.....	이종길장로
찬양	..... 곤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호산나찬양대

**주일3부(세대통합)예배 / 오전 10시30분**

인도:권훈목사

찬송	..... 송축해 내 영혼, 540, 442, 선한 능력으로	다함께
기도	.....	권오탁장로
찬양	..... 내 모든 것 주께 맡기네	글로리아찬양대
파송과위탁	.....	다함께

인도자 :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과 이웃  
 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회 중 :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일4부(열린)예배 / 오후 12시**

경배와찬양	.....	소리엘찬양단
목회기도	.....	인도자

†내주기도 : I부 - 신재원 장로 / II부 - 신두교 장로 / III부 - 배승룡 장로  
 청년예배 - 류형근 청년 / 찬양 - 김상용 집사 / 수요 - 김순화 권사

†이달의 강단 꽃장식 : 박상준 김종학 김미혜 김부현 장은진 장은서 김건동 김세민 표현창

**\* 7월 예배대우인 - 예배 시작 10분 전까지 본당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

구분	안	내	봉 헌	예배중보기도	차량안내
I	김신호 권영민 임현숙 최미자	신동건	황재남	강성갑 고예란 권대기 권오덕 권중익	
II	권태국 조영욱 서금숙 윤영이	서일교	강영희	길건성 김중관 김주현 박수권 박영재	
III	양광석 최종일 김은숙 서필화	정위동	서필화	사봉권 신미영 성기용 서재창 양광석	
IV	안영진 조지용 권영수 이금란	권오승	박영신	이국한 정위동 정영수 조대용 황병락	

**주일5부(청년)예배 / 오후 1시45분**

인도자:정준환목사

기도 - 조현상청년

설교 - 시편33:1~12(구약P.824) /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 정준환목사

**주일오후찬양예배 / 오후 3시 (6·25 보훈가족 초청예배) 인도자:권훈목사**

경배와 찬양 - 새롭찬양단 / 찬송 - 218, 582, 54 / 기도 - 신두교장로 / 찬양 - 시온찬양대

설교 - 시편23:1~6(구약P.818) /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 허승부목사

**수요오전예배 / 오전 10시30분**

경배와 찬양 - 예음찬양단 / 특송 - 백합중창단

설교 - 누가복음15:11~24(신약P.120) / 그래도 잊지 말아라 / 권훈목사

**수요저녁예배 / 오후 7시30분**

경배와 찬양 - 르비딤찬양단 / 기도 - 남미화권사 / 특송 - 101~106구역 / 찬양 - 다비다찬양대

설교 - 누가복음15:11~24(신약P.120) / 그래도 잊지 말아라 / 권훈목사

**묵상 노트**

**“섬김과 영감” (열왕기하 4:32~37)**

- 수넬 여인의 \_\_\_\_\_ (9~10절)  
 묵상을 위한 질문) 여호와와 선지자를 경멸하고 무시하던 당시 이스라엘 상황 속에서  
 도 외모가 아닌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아볼 수 있었던 수  
 넬 여인은 아무 보상도 바라지 않는 순수한 마음으로 엘리사를 섬  
 겠다. 그 섬김으로 인해 엘리사는 여인을 축복하였고 아들이 없던  
 가정이 잉태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나 사람들의 인정을 바라지 않고, 진실되며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기고 있는가?
- 회복되는 \_\_\_\_\_ (32~34절)  
 묵상을 위한 질문) 수넬 여인과 엘리사는 어느 순간인가부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집중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게 되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을 하나님  
 께서는 언젠가 치셔서 우리의 떨어진 영감을 회복시키시는 때가  
 있다. 그때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진실되게  
 기도드리면 된다. 우리에게는 혹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이 있  
 는가?